

P30. 농촌 노인의 기능상태(ADL, IADL)와 식품영양소 섭취량과의 관련성

Association of nutritional status with functional status in rural elderly

최정숙*, 권성옥, 정인경¹⁾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¹⁾

Choe, Jeong-Sook* · Kwon, Sung-Ok · Jung, In-Kyung¹⁾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¹⁾

노인의 건강 및 복지에 중요한 인자인 기능상태는 노인이 사회인으로 자립된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능력으로 노인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능상태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영양섭취 상태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능상태(ADL, IADL)를 파악하고 기능상태에 따른 영양소 및 식품섭취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조사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9월에 걸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자 노인 76명, 여자노인 204명을 대상으로 기능상태 평가를 위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상생활동작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능력(IADL), 식이섭취(계절별 24시간 회상법) 등을 조사하였다. 일상생활동작능력의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혼자서 식사하는 기능과 여행이 가능한 대상자는 각각 98.2%, 용변처리가 가능한 대상자는 97.9%로 높았으나, 소변을 참을 수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약간 낮았다. 특히 남자노인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 목욕하기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능력에서는 식사준비능력이 있는 사람이 92.1%, 독립적으로 일상용품의 구매가 가능한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88.2%로 높게 나타났으나, 은행 재정관리 능력(71.4%)이나 전기요금 청구시 혼자라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73.2%)의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전기요금 지불과 은행 재정관리 능력이었는데 여자노인의 경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이것은 재정관리를 주로 남자들이 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상태를 11개 항목 모두 가능한 집단(독립군)과 11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가능하지 않은 집단(비독립군)으로 나누었을 때, 독립군은 전체대상자의 약 63%이었고, 비독립군은 37%정도였다. 여자노인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비독립군의 비율이 남자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p < 0.01$). 일상생활동작능력에 따른 영양소 섭취상태를 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독립군에서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RDA%)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은 열량, 칼슘, 인, 비타민 D, MAR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그밖에 대부분의 영양소에서도 독립군이 더 많이 섭취하였다. 식품섭취에 있어서도 일상생활동작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총 식품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식품군의 섭취량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독립군이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농촌 노인들의 양호한 기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영양·식품섭취가 요구된다.